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하상주보

2018년 7월 22일 (나해) 연중 제16주일 제17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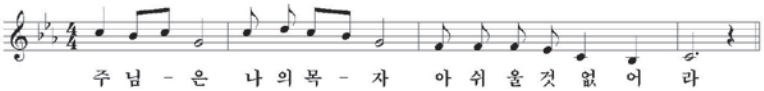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마르 6,34)

〈착한 목자〉, 필립 드 샹페뉴, 17세기경, 프랑스 포트루아얄 데 샹 미술관

[제1독서] ····· 예레 23,1-6

[화답송] ····· 시편 23(22),1-3ㄱ.3ㄴㄷ-4.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에페 2,13-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 6,30-34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1] 주 하느님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파견성가: [73]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그때에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3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34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The apostles gathered together with Jesus
and reported all they had done and taught.
He said to them,
"Come away by yourselves to a deserted place and rest a while."
People were coming and going in great numbers,
and they had no opportunity even to eat.
So they went off in the boat by themselves to a deserted place.
People saw them leaving and many came to know about it.
They hastened there on foot from all the towns
and arrived at the place before them.

When he disembarked and saw the vast crowd,
his heart was moved with pity for them,
for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and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

바오로딸 콘텐츠

묵상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생산 능률과 효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환산하다 보면 복음의 가치들도 물질적 척도로 평가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물질적 평가와 보상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군중은 가난한 이가 부를 얻고, 병든 이가 치유되고, 불의한 재판의 결과가 공정하게 바뀌기를 기대하며, 복음이 세상 속에서 내는 효과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기대감이 커질수록 복음이 지닌 내면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선포는 능률과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평화와 자유의 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 안에 '쉼'을 통해 그것을 깨닫도록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신성한 노동이 고된 노역으로 전락하고, 기쁜 봉사가 피하고 싶은 의무감으로 느껴질 때, 내가 선택한 삶이 잘못된 판단처럼 여겨지고, 희망찬 내일이 두려운 미래가 되는 불안감에 빠질 때, 우리는 잠시 외딴곳에서 쉬면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 내가 가진 재물과 세속적 권력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나의 위선과 기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으로 갈라져 적대하며 살아가는 현실은 물론, 우리가 지닌 내적 모순을 십자가를 통해 화해시키시어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합니다. 흩어진 양들을 이끌어 줄 목자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어 줄 그날이 올 것임을 확신한 예레미야 예언자의 굳은 믿음과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거룩한 기적
성 베드로와 요한의 절름발이 치유

〈성 베드로와 요한의 절름발이 치유〉 1655, 캔버스에 유채화, 125.7 x 165.1cm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은 〈성 베드로와 요한의 절름발이 치유 Saints Peter and John Healing the Lame Man〉로 사도행전(3,1-10)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활동한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French, Les Andelys 1594-1665, Rome)이 예술적으로 재현한 대작을 보유한다. 그림은 프랑스 리옹 출신의 로마 상인 메르시어(Monsieur Mercier)의 주문으로 제작되었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1924년에 원작을 기증받는데, 19세기부터 시작된 복제본들의 진위여부 논란은 2008년 소더비 경매품으로 재등장하며 다시 한 번 미술계를 주목시킨 명작이다. 푸생은 1650년대 중반에 3대 도시 경관을 그렸는데, 말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양식이 잘 드러난 마지막 작품이다. 관람객은 당대 유행을 선도한 바로크 양식에 흡수되지 않고 라파엘(Raffael-lesche)의 고전주의 양식과 정확한 구성을 따른 미술 아카데미의 정수를 만난다.

푸생은 고대 그리스 초기의 도리아 양식의 거대한 건축물을 기적의 장소로 설정한다. 격자 무늬 바닥에서 시작되는 기하학적인 3차원 공간을 깊숙이 끌고 가는 지평선 끝자락의 일몰이 시작되는 붉은 하늘은 두 성인의 기도 시간 오후 3시와 일치한다. 다양한 건축적 각도로 탄생한 "아름다운 문"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한 기둥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비를 구하는, 모태에서부터 불구였던 절름발이를 치유한다. 중앙의 세 인물이 형성하는 넓은 삼각형은 화면의 중심축으로 신중하게 전체의 균형을 잡는다. 양편에 7명씩 등장하는 배경 인물은 여인과 아이마저 동일하게 배치함으로써 명백한 고전주의의 좌우대칭을 따른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인물들의 제스처와 역동적 움직임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화면의 리듬감과 활기찬 생동감을 조성한다. 관람객은 겹쳐진 의상의 볼륨과 주름 그림자의 연속적인 이동과 변화로 창조되는 다양한 색상과 정교한 디테일에 감탄한다.

성서 원문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위의 전권을 부여받은 베드로가 절름발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푸생은 그 역할을 요한으로 대체한다. 반면에 베드로와 불구자의 손이 닿기 직전의 자세는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경당 천정화에서 아담과 하느님의 손동작이다. 절름발이의 발 밑으로 베드로의 발을 집어 넣어 일으키는 극적인 기적은 감동적이지도 광란적인 분위기도 아니다. 기적의 치유는 아름다운 문의 평범한 하루를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일상에서 일어난다. 일부 목격자는 놀라워하고 다른 이들은 목전에 닥친 자신의 일에 충실해 무심하게 지나친다. 수평과 수직으로 구성한 장엄한 성전에서 강렬한 선과 음영으로 탄생한 두 성인의 대담하고 거침없는 기적의 행위는 고전적 에너지와 결합한 종교적 재해석으로 창조되었다. 관람객은 성인들의 기적이라는 선명한 중심 초점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협하지 않는 차별성으로 회화적 목표를 달성한 대가의 예술적 능력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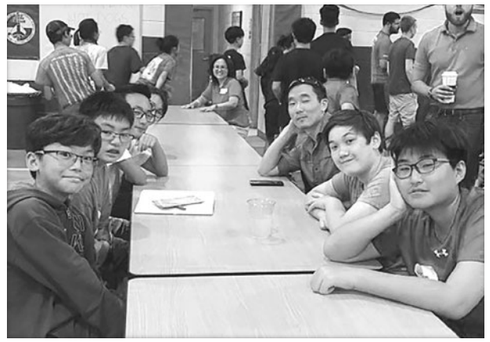
푸생은 이상화된 고전주의와 자연주의 화가로 분류되지만 내용은 바로크적인 반종교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으로 제기된 종교적 의문에 맞서 가톨릭 고유의 진리와 정당성을 옹호하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일상의 경험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자연주의 회화적 철학은 절름발이를 치유하는 두 성인을 재현한 이미지로 구체화되었다. 푸생은 종교적 혼돈기이자 최대 위기였던 17세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과 헌신은 선행과 기적으로 연결되는 명확하고 가시적인 불변의 질서를 화면으로 전달한다. 그는 신성의 불꽃으로 불가사의한 치유에 단숨에 도달하는 긴장감 넘치는 거룩한 순간을 기적이 제거된 명백한 현실적 관여로 제시한다. 관람객은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기적을 지나치는 그림 속 인물이 곧 자신의 자화상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요한의 왼손이 가리키는 하늘이 진정한 천국이라고,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받아들인다.

〈이순희 아네스〉
미술 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Jr. High activity

SERVE 2018

with the theme "Wonder & Awe"



From July 8 to July 11, **SERVE 2018**, formerly known as Junior High Work Camp was held at St. Leo the Great Catholic church in Fairfax and it was a great success!

More than 70 middle school students, 18 high school helpers and 17 adult crew leaders from five parishes in the area(St. Leo the Great, St. Paul Chung, St. Mary of Sorrows in Fairfax, St. Mark in Vienna and St. Veronica in Chantilly) participated in this year's camp.

The camp officially started on Sunday evening with a parents' orientation while the students and adult crew leaders participated in icebreaker games. With the theme "**Wonder and Awe**", participants spent a week of "Sacraments, Service and Sacrifice." We were very blessed by Fr. Whitestone's homily during each Mass and the spiritual talks from recently ordained Fr. Tipton, Deacon Silva as well 9 priests who came for the Sacrament of Penance, Holy Hour and Praise and Worship music.

On Monday, for service projects, our students made 202 meals for Christ House, 74 Blessing Bags for the Homeless, and 68 Baby Bags for the Gabriel Project. For Tuesday, each crew of 4-5 students, led by one adult, was sent to one of the five parishes and provided manual labor i.e., painting the fence and yellow curbs (did you notice our freshly painted curbs!), washing a school bus, cleaning up the parish kitchen, reorganizing a food pantry and spreading mulch.

On the last day of camp, the crews visited nursing homes and collected 3418 lbs. of food for the St. Vincent de Paul pantries at St. Leo, St. Mary of Sorrows and St. Mark. During mealtimes and through many indoor & outdoor fun activities, participants had opportunities to get to know fellow Catholics from the other parishes.

I am very proud of all 15 middle school campers from our parish who sacrificed 4 days of their time and offered them to God. Please say, "Thank You!" to crew leaders, Mrs. Mikyong Kwon, Mrs. Seonhwa Jeong, Mr. Andy Oh and high school helpers, Dylan Jang, James Sunwoo, Allen Jeong and Metthew Hargrave for their time and talents.

Additionally, please thank to Mr. Kwon(Ignatius) of our facility department and Mrs. Suk(Agnes) of the parish office for their help. Last but least, very special thanks go to Rev. Paik for his strong and generous support for our youth activities.

- ***Yunchong Boyle*** **(Clare, CCD asst. principal)**

SERVE 2018은 Crew Leader로 참여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5개 본당에서 온 많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자원 봉사에도 놀랐으며 이 캠프를 있게 하기 위해 알링턴 교구는 물론 타 성당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열심히 뛰신 윤정 Boyle 선생님과 Shawn Boyle 형제님께 많이 감동받았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두 분은 미국에 있는 저희 한인 성당에 정말로 소중한 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참여하는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기도와 찬양, 희생 그리고 노동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더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에너지 넘치는 청소년들과 쉼없이 지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기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 권순민 Francis의 작은 변화를 곁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몸은 힘들었으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소중한 경험을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며, 저희 성당 아이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미경 모니카, Adult Crew Leader

SERVE 2018은 희생,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캠프 시작 전부터 crew leaders 및 고등학생 헬퍼들은 자신의 시간을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봉헌하였습니다. 물론 이 캠프를 준비하는 주최측은 거의 몇달 간의 준비 과정이 있었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캠프 중에 저희는 미사와 고백성사, 찬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Father Whitestone의 강론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씨앗으로 심어졌으리라 믿습니다. 노동의 봉헌도 아이들의 따스하고 순수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일년 동안 미사 참례를 거부하던 제 아이도 이번 봉사가 끝난 후 스스로 미사 참례를 하겠다며 주일에 집을 나섰습니다. 제 아이의 마음에도 하느님의 기적의 씨앗이 심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좋은 모범을 보여주리라고 마음 깊이 다짐해 봅니다.

정선화 도로시, Adult Crew Leader

Work camp wa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community service and getting to know other Catholics within the Arlington diocese. The kids were very enthusiastic about the opportunities to help their community and recognized the dignity of their labor in helping those in need. In visiting the nursing home, we exercised works of mercy by providing companionship and relation to the elderly. In painting the sidewalk curbs, we exercised corporal works by contributing to maintenance of shelter. All-in-all it was a great experience and I recommend it to anyone interested in growing in their Catholic faith.

Andy Oh, Adult Crew Leader

While I was at work camp I realized a lot of people need help. It was my first year, so I didn't know what to expect but going to Mass every day was a good experience and at the end all went well.

Sean Park, Rising 7th

My Service to the 2018 CAMP was really tiring but fun. I met new friends and learned the importance of God. I had the pleasure to paint the curb at St. Marry of Sorrows and got to meet and play with the elderly people at the senior center. I'm especially glad to have been a part of a fantastic group that collected a variety of food cans for the less fortunate. I am looking forward to coming back.

Francis Kwon, Rising 7th

Not only did I enjoy being with God's chilldren but I also was able to become closer in Christ alone.

Dylan Jang, High School Helper, Rising 11th

I had gotten closer to God with all the Masses and prayers we did. It was also a great service opportunity and I met many new people.

Rachael Kim, Rising 8th

My workcamp experience really inspired me to want to help more people. The wonderful homilies and speeches by Father Whitestone and Mr. Mark on helping others was the most inspiring thing. Although leaving my electronics at home for three days was not easy but I still had fun, and while having fun, helped a few people too. In conclusion, this year's workcamp was a blast and I look forward to next year.

Malcolm Boyle, Rising 8th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 운동회

딱지뒤집기

줄다리기

하상 한국학교에서는 지난 13일(금) 여름학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야외 주차장과 체육관에서 총 7꼭지를 돌면서 청, 백, 홍팀 대항으로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 종목으로는 컵높이 쌓기, 수박 많이 먹기, 스펀지 릴레이, 물풍선 던지기, 콩주머니 던지기, 응원구호 외우고 솜사탕 먹기 등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전교생이 체육관에 모여 모두 세 개의 게임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구성된 전체 게임에서는 줄다리기와 딱지 뒤집기, 달리기 릴레이를 하며 새롭고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청, 백, 홍으로 나뉘어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체육관이 떠나갈 정도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한편 학부모회에서는 간식뿐 아니라 점심으로 맛있는 피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동회가 되기까지 수고한 교사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학부모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상한국학교 기사 제공 〉

투호 던지기

컵 쌓기

스폰지릴레이

릴레이

물풍선 던지기

청군

백군

홍군

안나회 소식

안나회 7월 월례회가 지난 15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진행되었다. 5월과 6월 그리고 7월에 생일을 맞은 15명의 회원들을 함께 축하하고 점심과 떡을 나누며 친교를 나누었다.

구인광고

Dr. Office 에서 일하실 풀타임 · 파트타임 Receptionist 구합니다.
☎ 문의 : (703)505-0204

하상회 소식

하상회 7월 정기모임은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친교실에서 월드컵 결승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회원들은 점심을 먹고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 2018 – 2019년도 사목보고회

- 일시 : 7월 29일(일) 오후 1시, 성당 (오후 12시 점심식사)
- 참석 대상 : 회장단, 사도회 임원, 재정위원, 구역봉사자 (소공동체), 단체장(신심 및 활동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CD, CYO) 교감, 하상문화원 원장, 하상방송 코디네이터, 하상 성인학교 교장/교감, 하상 한국학교 교장/교감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2 복사단 모임

- 일시 : 7월 22일(일) 오후 12:30(B-1,2)

3 K of C 모임

- 일시 : 7월 22일(일) 오전 11:30(A-1,2)

4 울뜨레아 정기모임

- 일시 : 7월 27일(금) 미사 후 오후 8시(A-1,2,3)
- 문의 : 김지민 율리아나 (703)582-5692

5 메디케어 세미나 (교육부 주관)

- 일시 : 8월 5일(일) 오전 11:30(A-1,2)
- 내용 : 메디케어 기본상식
- 강사 : 최경분 클라라(Assa Financial 대표)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6 CCD 여름 캠프 신청

- 대상 : 3학년 – 7학년(새 학기 4학년-8학년)
- 일정 : 8월 3일(금) – 8월 5일(일)
- 장소 : Pine Creek Retreat Center, Grove, VA
- 신청 : 8시, 10시, 11시 40 미사 후, 친교실

7 주일학교 등록 안내

- 2018-2019 주일학교 등록을 하상관 로비에서 받습니다.
- 신청 : 7월 8일-8월 12일, 10시 미사 후
- 등록비: 한 자녀 $80 / 한 가정 두 자녀 $15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윤정보일 (703)371-3589

8 바오로회 총회 및 새 임원 환영식

- 일시 : 8월 5일(일) 오후 1시(나눔터)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72-1932/ E-mail : sleeh@yahoo.com
- 바오로회에 관심 있으신 20-30대 결혼하신 분들은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9 2018 – 2019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

- 학사 일정 : 2018년 9월 8일- 2019년 5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등록 : 하상관 교무실 (8월 3일까지) / 10시 미사 후 친교실 (7월 22일 – 8월 26일) / 우편접수 가능(성당 웹사이트 참조)
- 문의 : 육옥영 교감 (703)598-5540

10 워싱톤 한국 맨발 재속 가르멜 침묵 피정

- 일시 : 8월 12일(일) 오전 8:30 – 오후 5시
- 장소 : Monastery of Discalced Carmelite Friars
- 참가비 : $50(점심포함)
- 신청 : 박은미 마리스텔라 (703)955-6633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 · 미사 시간 찾기
www.masstimes.org

측은지심

바오로딸 콘텐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마르 6:34)

모든 이에게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

기준과 조건으로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그립습니다.

임의준 신부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22일(일)	연중 제16주일	레지오 마리애(오전 8시), 8시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요한회 월례회의 없음, K of C 모임(오전 11:30, A-1,2), 복사단 모임(오후 12:30, B-1,2)
23일(월)	연중 제16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24일(화)	연중 제16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바오로 기획부 모임(오후 8시)
25일(수)	성 야고보 사도 축일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성서 통독반(오후 8시)
26일(목)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27일(금)	연중 제16주간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울뜨레아 모임(오후 8시), CLC 모임(오후 8시), 바오로 자매모임(오후 8시)
28일(토)	연중 제16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혼배미사(오후 4시, 성당), M.E.봉사자 모임(오후 7시)
7월 29일(일)	연중 제17주일	레지오 마리애(오전 8시, 성당), 사목보고회(오후 1시, 성당)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6주간 : 1 역대 19-24, 요한 20장**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26일(목) 오후 5:00-6:00
7월 27일(금) 오후 8:00-9:00
7월 29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하상초대석 :** 뿌깔파 선교단 인터뷰
- **특별기획 치유 :** 성모병원의 역사 8. 차별없는 인술을 펼쳐온 다양한 이야기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7월 15일(연중 제15주일)

주일헌금	$ 7,705.91
교무금	$ 9,74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4,380.00
특별헌금	$ 520.00
2차헌금	$ 0.00
합계	**$ 22,350.91**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10:2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오전 11: 55 – 12:30 (봉사자 차량)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종(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고필순(젬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박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이효천(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서경원氏 자 : **서동민(크리스토퍼)**
◈ 정명환氏 녀 : **정환희(에스터)**

- 일시 : 2018년 7월 28일(토) 오후 4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또)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미카엘)
703-881-1155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